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역도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2:2)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총회 서울총회사무관 강갑구 역담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정삼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홍

금주 (28) 일

제3차 청지기 훈련 금요일집회 저녁 7시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마 26:39)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모든 지혜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배우신 순종을 갯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습니다(요 1:14). 배우시고 체험하시고 실천하신 주님은 완벽한 신앙의 길을 걸으셨습니다(마 12:2). 죽음 앞에서까지 '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 26:39)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극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믿음의 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네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의 기도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 행동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겔 18:31). 마음을 씻으며 눈물로 간절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자기부인과 십자가가 나의 부인과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땅에 있어도 신 영원을 천국을 소망하는 은총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딤후 4:18). 이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는 청지기 훈련으로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혼자만 나오지 말고 주위 분들을 권하여 함께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보멸의 연으로 새롭게 조성될 것입니다.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조성케 하소서"(시 119:154).

*이번 청지기 훈련 시 함께 복독할 말씀과 찬양을 먼저 심령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순종함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기도(찬송가 203장)

갯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히 5: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요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막 15:17 예수에게 자새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골 3: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2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찬송가 465장, 367장)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다.

행 8: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찌라
론 1: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행 7:59,60 (59)지혜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3 왜 이 기도가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찬송가 423장)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로 그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골 3:12 (1)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약 것을 행하고 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있어 계시니라 (2)위약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4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찬송가 71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

빌 4:7 (4)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7)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 3:16-18 (16)사드락과 메식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21일 그날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령이 터는 불로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로 건져 내시리이다 (18)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새우신 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5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찬송가 353장)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마 16:24,25 (24)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리라
요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금주(26일),

수요 2부 예배 시 임직예배

제38대 장로 · 제18대 안수집사 · 제46대 권사

자난 6개월간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들 1516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중들이 임직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엔 임직을 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고백은 한결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 이러한 이들의 고백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고후 5:10).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중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빌 2:3). 이들이 앞으로 갈아가야 할 길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금주(26일), 수요 2부 예배 시에 있는 임직예배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5면에 임직자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23일), 찬양 예배 시 제 5차 흡수 ·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오후 3시 결렬리움)

(본지 4면에 청지기 훈련 좌석배치도가 있습니다.)

ONE SPECIAL OPEN DOOR

"I know your deeds. Behold, I have put before you an open door which no one can shut, because you have a little power, and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Revelation 3:8)

Jesus Christ, who is holy, who is true, who has the key of David, who opens and no one will shut, and who shuts and no one opens, gave today's Bible message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He told them, "I have put before you an open door". He made this special door available for salvation, for reaching God the Father in heaven. He is the door, "Truly, truly, I say 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Jn. 10:7).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I am the door; if anyone enters through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Jn. 10:9). You have to get in through this door, or else you are not safe. If you enter this door, Jesus will protect you and supply all your needs. He provides earthly and heavenly blessings. He tells u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Mt. 28:18). This world has so many different doors that you can walk through, like department store doors, church doors, and even bar room doors. You need to know that between heaven and earth there is only one door-Jesus Christ!

Your time in this world is passing, and the end times are near, but right now Jesus makes available to His church this wonderful open door opportunity. Many of today's churches, like the world, try to introduce other doors. Do not be fooled, there is only one door. The Apostle Paul tells us, "for a wide door for effective service has opened to me, and there are many adversaries"(1 Cor. 16:9). Whoever comes in the open door can find rest, but many people do not. Jesus endows everyone for salvation through His church, but the church is not emphasizing this door. They are calling attention to physical blessings at the expense of spiritual blessings. God gave us this opportunity, but soon this door is going to close. Right now, the door of the gospel,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open wide,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have been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have been loosed in heaven"(Mt. 16:18-19). This rock, the divine revelation and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is very powerful. It enables the church to open and close earthly and heavenly treasures. Church members may change things, but Jesus Christ will never change. He holds the door widely open for salvation. Therefore, do not be deceived. Many people leave the church because of sufferings caused by other people, but the doo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are widely open for believers to pray and worship Him.

Jesus opened this special door for you, and He wants you to witness it to others. Paul tells us, "Devote yourselves to prayer, keeping alert in it with an attitude of thanksgiving; praying at the same time for us as well, that God will open up to us a door for the word, so that we may

speak forth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have also been imprisoned"(Col. 4:2-3). The door is always open through the Word of God; like today's sermon. Paul asked his people, "and pray on my behalf, that utterance may be given to me in the opening of my mouth, to make known with boldness the mystery of the gospel"(Eph. 6:19). God is the One who opens the door for witnessing to believers, "Then Philip opened his mouth, and beginning from this Scripture he preached Jesus to him"(Acts 8:35). Peter also experienced God's open door policy, as he preached Jesus to the house of Cornelius (Acts 10:33&34). Satan is not interested in people who preach themselves, but he is extremely concerned about those who preach the Bible's gospel, "For we do not preach ourselves but Christ Jesus as Lord, and ourselves as Jesus' bondservants for Jesus' sake"(2 Cor. 4:5).

Jesus opens believers' hearts, "A woman named Lydia, from the city of Thyatira, a seller of purple fabrics, a worshiper of God, was listening; an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the things spoken by Paul"(Acts 16:14). The Emmaus disciples testified,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Jesus] was speaking to us on the road, while He was explaining the Scriptures to us?"(Lk. 24:32) An open heart of a believer is filled with love. 1 John 3:23 says, "This is His commandment, that we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love one another, just as He commanded us." No one can truly love another without Jesus Christ in his or her heart. 1 John 3:14 tells us,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He who does not love abides in death." When Jesus enters your heart, you begin to truly love other people. If your heart is open to God, God will fill it with His Holy Spirit, and He will live in your heart and you will live in His forever, "We have come to know and have believed the love which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the on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abides in him"(1 Jn. 4:16).

Today is Reformation Sunday. During the 16th century, the church emphasized human authority over Jesus Christ. God used Martin Luther to help reform that situation. The church of Jesus Christ needs to be fully awake now. The end times are nearing. Jesus is the one special open door that offers true salvation. Whatever He opens, no one can shut, and whatever He closes, no one can open. He is going to close His special door very soon. He gave this door to the church, and we must make sure that we do not block it in any way, but help maintain its wide opening. Believers have the opportunity to walk through this open door and share the wonders of God's grace with others. Have you walked through this door yet? Are you proclaiming Jesus Christ with your mouth? Is your heart open to love God and others? 

오직 하나의 열린 문

“불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요한계시록 3:8)



김성판 목사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예수 그리스도, 곧 기록하고 진술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린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특별한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 10:7).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나옴과 고통을 얻으리라”(요 10:9).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과 하늘에 속한 복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교회의 출입문이 있는가 하면 유흥가로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열린 문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 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처럼 여러 가지 다른 문들을 소개하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속지 마십시오. 영생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요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고전 16:9).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문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 대신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이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복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8-19). 이 반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교회는 이 땅과 하늘의 보화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누군가가 사실을 다르게 왜곡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 이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문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특별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2-3). 이 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나”(행 6:19). 신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 베드로 또한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전도의 문을 열어 두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행 10:33,34). 사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 떠벌리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마음

예수님은 신자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행 16:14). 엠바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교”(눅 24:32). 마음이 열려 있는 신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3:23은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14는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성령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깨어 있으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6세기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개혁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하고 특별한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분이 열린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 특별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이 문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항상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이 문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열려 있습니까?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살전 1:9-10)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살전 1: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살전 1:3).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였다(살전 1:5). 또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교회였다(살전 1:6). 한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분이 되었다(살전 1:7).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였다(살전 1:10).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이 말씀을 대할 때 흥분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의 아들을 기다린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벧 3:20).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한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시리라”(눅 17:24).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주님이 오시기에 우리는 핏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의 아들을 기다려야 한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은총이지만 동시에 고난과 고통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명예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사왕의 생애를 보라. 그는 수 십년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살펴라. 십자가가 없을 때 평강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을 때 고난과 책망이 아니라도 평강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신 것이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19,25). 아담의 죄는 온 우주를 죄로 물들게 하였다. 그리고 아담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공격하고 있다.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꾀계와 술수를 간파하고 오직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야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벧 3:21).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유다자파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라. 이것을 통해서 형편없는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보게 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는 완전치 새로운 형체가 된다(요일 3:2-3).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몸의 구속의 기다려야 한다.

교회의 신앙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신앙을 기다려야 한다(마 25:6).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 12:36).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며 하신다”(계 22:17).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신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우리는 영원한 집, 영원히 거할 곳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 후 3:13).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할렐루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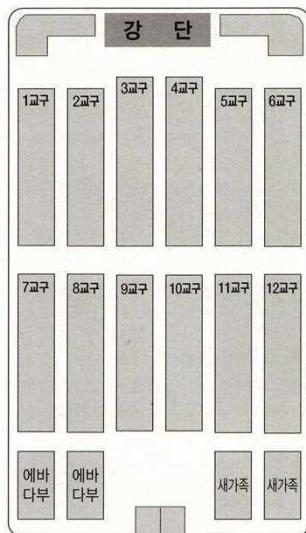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는가?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 나의 삶이 온통 예수로 가득해야 한다.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행 21:3). 나의 일이 잘 되기를 기다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소망,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친히 부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청지기 훈련 좌석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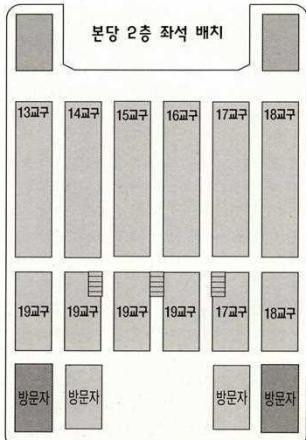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들을 위해
탁아부를 운영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베디니홀과 영아부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층 좌석 배치



제38대 장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최차용 8 2610	신인길 4 92-49	유상태 18 80-268
박상대 2 4115	김규석 6 88-866	신광철 4 83-73

(좌에서 우로 연령순)

제46대 권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고효영 17 89-1236	김경숙 7 96-540	김병희 14 5363
김복수 10 97-909	김부영 15 4119	김성자 2 93-1271
김애자 3 98-1183	김연단 16 85-883	김영남 17 89-651
김옥자 15 87-747	김유경 2 95-1464	김일순 12 5346
김정수 6 88-153	김정운 4 89-252	김춘자 1 83-617
남상인 16 2087	노혜경 12 90-401	박금식 14 84-740
박숙경 18 87-113	박숙희 13 82-739	박영자 18 92-1004
박옥자 2 86-449	박치화 8 81-296	박태순 3 93-283
박현순 14 85-636	변경심 18 82-378	사혜경 15 86-293
손선래 14 94-718	심금숙 6 82-208	서영순 11 85-578
심정래 18 3199	안순옥 5 92-1308	오경림 3 88-587
유옥자 11 83-403	윤자옥 6 89-1114	윤효남 2 99-247
이경자 7 98-609	이분옥 5 95-120	이성숙 12 90-759
이승연 8 92-303	이정화 15 94-545	이종희 4 94-136
임창순 10 93-127	장용숙 13 88-324	장철자 11 87-521
전옥순 1 87-81	전준옥 1 85-794	정애화 9 1409
정옥화 1 84-612	정정금 13 86-584	정혜진 18 88-151
조윤숙 4 92-770	주순희 2 89-674	주영희 4 88-933
최양숙 17 4667	최영실 10 2002-0271	최희은 1 2787
최정화 9 84-966	한금래 16 2621	합화자 9 92-652
홍은기 3 89-825	황명숙 7 95-1527	황방자 5 84-431
황은선 7 83-42		

(좌에서 우로 이름순)

제18대 안수집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한호철 15 89-575	송순호 12 94-502	정금수 18 97-144
강천석 7 96-540	박춘근 8 91-1107	이민호 14 91-735
이창우 17 4641	이병근 4 97-70	권삼진 1 88-706
노은영 17 92-62	이진만 11 79-117	김나홍 13 84-1348
조종원 2 84-40	최광현 3 95-190	최진성 15 84-1239
한현석 3 98-1183	최용길 6 85-432	김규용 16 94-262
최우근 5 92-433	박종운 5 86-455	김종규 9 82-835
노경화 4 81-729	이양호 10 86-4	이근호 14 85-636
채홍표 4 87-778	정문호 9 84-247	한용배 8 91-1005
정창원 1 80-623	박영섭 7 94-360	최홍섭 15 81-20
장석창 5 93-1102	변창대 8 94-954	송한천 6 87-833
김환진 17 92-105	안세현 2 96-399	권진국 11 86-303
김상열 18 86-566	김재호 16 90-704	김병수 13 89-1489
박명호 7 2003-0231	김영목 12 79-112	정재영 18 95-841
김동철 2 90-318		

(좌에서 우로 연령순)

제3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수서

처음 청지기 훈련에 참석했을 때 '청지기란 무엇이지?', '왜 따로 청지기 훈련을 받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청지기란 자기의 재산이나 직업, 직분 등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즉,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청지기 훈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깨어지기를, 내 뼈 속까지 박혀 있는 죄성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알기에 두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대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28일에 있을 청지기 훈련이 기대된다. 그리고 더욱 기도로서 준비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 청지기 훈련의 주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임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내 상한 심령을 채워주시려고 말씀으로 준비하셨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많이 듣고 그레아 함을 알고 있지만 ' 과연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있는가? ',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않는가? '란 생각이 들면서 결국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청지기 훈련의 말씀으로 내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리라 믿는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만민이 있기를, 믿음의 고백만이 아닌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한다.



계서연 (청년1부)

【파택자 교육을 마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오후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날 우리 권사 파택자 64명은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교육과 훈련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강의 시작하기 15분 전부터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찬 350장). 저희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일들을 또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가슴에 명함을 달고 성실히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모습은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 가운데 해야 할 과제도 많았지만 때마다 주시는 은총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천국일꾼의 모습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십자가 위해 터를 세운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는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종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권사직분이 명예나 장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권사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자세로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부족한 저는 앞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택틱스2, 2교구)

전도



최원근 그림 (유년부)

“꼭 다시 전도할 거예요”

엄마 회사에서 엄마와 함께 일하시는 아저씨가 계신다. 그 아저씨는 나와 엄마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예수님을 알지 못 한다. 한 달 전 나는 아저씨께 예수님을 소개하였다. “아저씨, 예수님은 나와 아저씨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저씨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저씨는 시큰둥해 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아팠다. 그러나 다시 아저씨를 만나면 꼭 다시 전도할 생각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남주의 (유년부)

소년부의 전도왕(박충연)을 인터뷰했습니다.

- ♥ 주로 어떤 친구를 전도했나요?
- ♡ 오음, 학교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 ♥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였나요?
- ♡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행복하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 박충연 군은 내성적인 성격 같습니다.)
- ♥ 전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 ♡ (아주 간단하게) 없었어요
- ♥ 집에서 멀어서 아버지의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친구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 ♡ 집에서 미리 전화를 해서 근처에서 만나 같이 차를 교회에 타고 왔요.
- 잠시 옆에 있던 박충연군이 전도한 이돈환 친구에게 물어보았요.

박충연 군이 전도한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장난치지 않으며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천국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리 / 김성경(소년부 면회회 부회장)

기도

해마다 선교를 떠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볼때마다 못가는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와 헌금으로만 후원을 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내가 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날이 오니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긴장되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전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다.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답답했다. 모든 것을 접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정스러운 우리의 생각을 접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역을 시작하고 날이 갈수록 힘이 더 솟았고 모든 상황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풀려나갔다. 십자가의 온종이였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은 없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사역을 맡겼다.

사역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다.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이 마음에 기쁨과 자유를 그리고 그곳에 속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한순옥 (집사, 3교구)

복음의 씨앗

선교지로 출발하는 우리팀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마는 앉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금하는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전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전정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며 만족하자고 열심히 기도하며 다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담당해주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5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복음 듣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글썽이는 눈물을 비치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먼지가 뽕알고 탈탈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 찾고찾아 들어간 시골 마을에 우리가 뿌리고 온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복음의 씨이 트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 많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성도, 9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9일(월) ~ 11월 5일(목)	유년부	김영기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0월 17일(월) ~ 10월 25일(화)	할렐루야 찬양대	최세진	10월 18일(화) ~ 10월 25일(화)	영아부	김성호
10월 18일(화) ~ 10월 25일(화)	장년부	김연태	10월 21일(금) ~ 10월 28일(금)	임아누엘 찬양대	강민수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0월 10일(월) ~ 10월 17일(일)	아현장로대	김문섭	10월 10일(월) ~ 10월 18일(일)	6교구(주거)	김영주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학아부	정원근	10월 11일(화) ~ 10월 19일(수)	장로2	정성현
10월 10일(월) ~ 10월 18일(화)	유저부	오순도			

교회 탐방 85 소년부 (면려회)

예수님이 좋아요

한참 계단을 올라 이른 곳, 교육관 5층 안 천에 마련된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무언가 친하게 나누고 있는 면려회 친구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내뱉은 아주 밝고 입맛 이득이 목소리에는 복음으로 돈들이 새워지고 있는 소년부의 생동도 느낄 수 있었다.

소년부 면려회는?

복음을 전하는 친구인코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소년부 자치회입니다. (강경경 교사, 지도)

모든 소년부 친구들에게 믿음의 분이 되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인영, 면려회장)

초등부에는 면려회가 없기 때문에 소년부에서 면려회가 있는 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 "초등부 동생들이! 소년부에 오면 면려회에서 함께 일하자." (김자진)

면려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할 수 있어요. (강경경, 면려회부장)

소년부에 출석하는 친구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한 영의 말을 듣고 하게 되었어요.

(강 운)

면려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매주 1시간 가량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읽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임소정)

소년부 친구들의 글을 담아 은혜를 나누는 '푸른초상' (1년 2회 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곽찬영)

매해 전에 면려회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전도는 영과 행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솔선수범하여 알고 있어요. (류성현)

생일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나나)

어떤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

면려회를 할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류성진)

매해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기쁘요. (이예원)

푸른초상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데, 만들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보고

주머니 저도 좋아요. (곽찬영)

면려회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모습

이 중에서 함께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김영서)

면려회를 통해서 물려받은 친구들도 알고, 친구

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좋아요. (임소정)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우는 감

사예요. (임인영)

현재 면려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새친구 초청 전도의 날'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지시에 따라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장민호)

면려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성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있습니다. (강경경 교사)

면려회를 위한 기도제도와 하고 싶은 말은?

소년부에 많은 친구들과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김의진)

소년부에 다니던 친구들 중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경)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김나나, 임소정)

지도 교사로서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강경경 교사)

건강한 몸으로 제가 많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저두요! (이예원, 강경서)

전한 친구가 있는데 꼭 전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 운)

"말씀이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해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진짜..." 이들에게 무엇을 질문하든 저절로 나온 말이다.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의 분이 되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떤 사무엘은 엘리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마친가 지로 이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담아가고 십자가를 건너는 종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야 사무엘이 잠잠 지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삼상 2:26).

(편집)

다음주일

23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화나 제인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가 작사했고 존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89)가 곡을 붙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 되었다.

1절은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믿음의 사역을 마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되는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1절은 이 놀라운 영광을 찬양한다.

후렴은 내가 주님의 곁에 서서 일생 동안 나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한다.

2절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두 마감할 때 구름을 타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천국에 올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한다.

3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보다 앞서 주님 앞에 간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한 소리로 찬양을 부를 것이지만 그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찬양한다.

4절은 천국에 임할때 천국의 영광을 찬양한다. 영화롭게 시온성 문을 통과하여 황금길을 다니다서 금문까지에 맞추어서 새 노래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동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있게 될 것을 찬양한다.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신 천국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 할 믿음의 초소이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힘 있게 걷는 충현의 성도가 되자.

(찬양위원회)

새 가 록 읍 원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73	이영남	19	청년1부	옥미제	2793	이영남	19	청년1부	서양순(18)
2774	한이영	19	청년1부	성경대(12)	2794	이희우	18	청년2부	서양순(18)
2775	구윤희	2	청년1부	김예자(8)	2795	김태은	19	청년1부	서순숙
2776	구영민	2	청년1부	김예자(8)	2796	연예	19	외선부	지르길(19)
2777	조희원	5	소망부	윤재준(7)	2797	신민숙	2	청년1부	
2778	황희호	8	청년1부	남용훈	2798	한예은	8	소망부	김향진
2779	최수진	8	소망부	박영세(10)	2799	차은이	6	청년1부	박차화
2780	이준근	8	소망부	최태원(4)	2800	민현호	8	청년2부	정태현
2781	안원혜	8	소망부	하대선(10)	2801	강희진	10	청년3부	윤재준(7)
2782	서윤진	13	청년2부		2802	고민호	2	청년2부	김욱기(12)
2783	박성순	9	청년1부		2803	정은호	2	청년2부	심호숙(2)
2784	한재훈	15	청년1부		2804	박지은	19	청년1부	신동기(1)
2785	한형만	10	청년1부		2805	정희원	19	외선부	정종훈(1)
2786	김소지	13	청년3부	이영태(1)	2806	류정민	19	외선부	김현배(10)
2787	양민희	19	대취부	김용순(18)	2807	허하리	19	외선부	김석영(7)
2788	김윤환	19	고향부	홍순진(1)	2808	천하민	19	외선부	조영규(5)
2789	고태훈	19	청년3부	강 협	2809	이영남	11	청년1부	이미희(1)
2790	김세원	1	청년2부	김규석(8)	2810	김예은	19	청년1부	
2791	최정민	5	청년2부		2811	안영호	9	청년1부	배종택(14)
2792	박영민	9	청년1부	배종택(14)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4차 월례회
일시: 26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2. 교사전체 월례회
일시: 30일(다음주일) 1500
장소: 갈릴리움

별 세

1. 김기택 집사 (강일전 집사, 강신선 안수집사회 부원, 윤장자 집사, 이종욱 집사의 사부, 4교구 방배7구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2. 김경애 티코권사 (민대영 성도의 부인, 10교구 해미리구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3. 권일태 성도 (신소자 권사의 모친, 10교구 방배3구역) / 16일 별세, 18일 장례
4. 나순애 집사 (양현주 성도의 부인, 18교구 상현리구역) / 16일 별세, 18일 장례

5. 김중옥 씨 (김기택 집사의 부친, 박종은 집사의 장인, 9교구 용두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6. 이봉은 은회권사 (17교구 강남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결혼

1. 정우철 군 (정순복 씨, 박순자 씨의 아들이)과 박은영 양 (박자조 집사, 박순자 집사의 딸, 7교구) / 29일(토) 1400 벌인 내 후정선 2층 예식소
2. 박영철 군 (이영하 씨의 아들과 김현진 양 (김중서 집사, 박정혜 집사의 딸, 7교구) / 29일(토) 1400 결혼이 호텔 2층
3. 이광진 군 (박희범 은회권사의 손자, 이정원 집사, 한정옥 권사의 아들, 11교구와 교현양 양 (교인식 성도, 윤장자 성도의 딸, 티코회) / 29일(토) 1500 강단 YMCA 회관 2층

◆ 3교구 전도대상자 초청집회

일시: 30일(다음주일) 오후 200(교구모임) 시
장소: 복지전 지하층

◆ 10교구 전도대상자 초청집회

일시: 23일(오늘) 오후 200-320 장소: 교육관 307호

◆ 1,2,3 교육위원회 전체 교사명단 제출

기간: 23일(오늘) 전교회 전체지
내용: 1,2,3 교육위원회를 속한 부서는 교사명단을 교육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수집사 부부 찬양연습

기간: 11월 27일(주일)까지 매주 오후 330-430
장소: 교육관 307호

충동원 전도주일

■ 중등1부

· 일시: 10월 23일(오늘) 오전 9:00-10:30
· 장소: 교육관 301호(중등1부실)

■ 고 등 부

· 일시: 10월 23일(오늘) 오전 11:00
· 장소: 제2교육관 4층(고등부실)

1,2,3 교육위원회의 수로식 및 동반 안내

1,2,3 교육위원회 전체 교회회교에서는 10월 30일(다음주일에 수로식을 하고 11월 6일(주일)에는 동반되는 부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학부보님들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재영/김형곤	이경준/김문섭	이창수/이성식	김준희/김홍기	윤수일/조중덕	황진섭/전은희	이성진/김영순

예배담당 안내 (10/26-10/30)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0/26	수요 I	하나님의 진리 통해 (호산나 찬양대)	여극군	표복식	입을 열게 하소서 (골 4:2-6) 김성관 목사
10/26	일석예배	십자가 군병 (실로암 찬양대)	김성관	정현민	하나님이 주님을 속중에 계시하시니 (레 24:30) 김홍기 목사(충동원교회로 이동)
10/28	창세기전	특별찬양 (연합찬양대)	정현민	임장식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 (마 26:39) 김성관 목사
10/30	주일 I	《예배 전 찬양》	황진섭	송두섭	오직 하나의 열린 문 (계 3:8) 윤수일 목사
10/30	주일 II	후일에 생명 그대 빛 / 소프라노 장영희(합창투어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경준	김진국	오직 하나의 열린 문 (계 3:8) 정현민 목사
10/30	주일 III	저는 불꽃 집회 / 오로노이 나탈리(합창투어 오케스트라)	위진강	최윤덕	오직 하나의 열린 문 (계 3:8) 김성관 목사
10/30	주일 IV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 바리새 조지(비엔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덕	이달욱	오직 하나의 열린 문 (계 3:8) 정중신 목사
10/30	주일 V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 소프라노 최서원(비엔찬양대)	양재웅	고재술	오직 하나의 열린 문 (계 3:8) 김성관 목사
10/30	주일찬양	합창투어 제1예배성가단 / 임태영 찬양대	이창수	김성호	민음의 물 (레 12:1-9) 정진호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오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철야	오후 10:30	금요집회 후 본당 앞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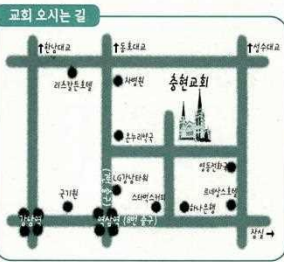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학사) 오후 1:00(성당)	제2교육관 1층
막 아 부	(학) 오전 9:00-오후 4:00 (토) 오후 6:30-오후 9:3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충원어린이교육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어린이교육	주간교육	충원 복지관
국내외전직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benezer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10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불로로 사용되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10월 28일 금요집회 시에 있을 제3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청지기 심령이 십자가를 깊이 새기며 자기를 부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3. 충현교회의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쁨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뚇한 전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기쁨교회 고주영교회 동화교회 12월교회 유복교회에서
- 열일섭 이훈 남선주 김경철 김종국
11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최무길 이창호 차진득 김장남 이종석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안종옥 임무현 이갑계 정종용 정종필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이정우 김단용 한승규 김현수 김희기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최유덕 이계인 박대영 이태식 정태두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박용규 김민욱 조종환 배준식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이성호 최희주 노영환 박철길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신상수 고재술 강철형 김영은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정철환 김승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안석현 김현근 김장국 김중선 임성식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김은철 전학대 김진식 권재국 김형곤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강승국 전은배 석영식 구재환 송두섭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민기 류병희 김형준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여극군 안창덕 나광형 정진호 김용덕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고광환 최정환 김희관 장 훈 임현덕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이희기 최종철 최종철 안현진 정중신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정성영 이정훈 김대식 김성훈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전도사
- 신동자 윤윤숙 현영준 김연식 홍순애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이규주 김갑자 안태순 김경현 조옥자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강덕철 최은실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현성진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임태두 강영미 옥다기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12월교회
- 찬양감독 강인규
- 찬양지휘자 서순성 김원섭
- 찬양감독장 김소연
- 찬양연주자 장진희
- 선 교 사 송요한